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선 로 통 당

제190호 【루계 제24968호】 주체104 (2015) 년 7월 9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도 따 라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래양상에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격동하는 20세기의 중심에 여주시고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 으신 백두산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 에 돌이켜보며 만수대언덕을 찾는 군중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

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 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억센 신념과 완 강한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 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다함없는 흠모의 마 음들이 끝없이 흘렀다.

각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 자들,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과 태양상을 비롯한 영상작품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 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으며 김영남 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 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 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 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 아 8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 으로 계시는 혁명의 대전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뗘세워주 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였으며 선군 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 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우리 조국을 자주의 성새, 필승불패 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기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 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 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 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 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대성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영원한 대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 들어섰다.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의 사회주의보루로 억세게 다져주신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우러르며 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대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 통이 빛나고 이 땅에서 세인을 경탄 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 시키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 음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 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 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수령 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사회주 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 적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혁명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몽골 대통 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친서를 우리 나라 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대통령특사인 담빈 간호야그 외 비서가 선물을 드리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외무성 국무

본사기자

정 **XI** <u>O</u> 동 동

무성 국무비서가 8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나이제리아런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 수 대 언 덕 에 높 이 모 신 21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7일 꽃 바 구 니 가 진 정 되 였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꽃 바 구 니 의 댕 기 에 는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비범한 정치실력,세련된 령도로 나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 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들, 윁남인민회의대표단, 재일조선청년 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

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않습니다. 》

수십만t에 달한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세계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록에 글을 남기였다. 의 자주화를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 대 한 김 일 성 동 지 께 서 와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방문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

해 01

에 즈음하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의 맹세모 임이 7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 회 일군들,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돌

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 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로서 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

갈것을 김상민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장의 선창에 따라 맹세다지였다. 참가자들은 일찌기 청년운동으로 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 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

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

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 년들의 영웅적위훈은 탁월한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의 강성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에

아로새기였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빛나는 업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 이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전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렁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회에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미덕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용위하는 견결한 전위투사가 되겠다.

당이 준 전투명령을 무조건 관철 하여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 를 지니고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 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 국의 만년재부를 일뗘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겠다.

발전소건설을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든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 준에서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겠다.

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창조물로 훌륭 히 일뗘세우겠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 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힘차 게 부르고 선군청년문화의 참모습을 만방에 떨치며 청년미풍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온 사 미풍이 더욱 차넘치게 하겠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마다에 소 중히 새겨안고 청년양묘장들을 잘 꾸 리고 관리하는것과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발전소 지구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겠다. 청년돌격대지휘관들은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감 으로써 모든 돌격대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 화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영웅들로 억 세게 키워나갈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천겹만 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청춘의 심장 을 혁명에 바치며 최후의 승리를 앞 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 값높은 위훈을 떨쳐갈 의지를 표명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떠이사랑속에 후대들이

싣고 콩우유차들이 수도 평양의 어린 어느해인가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달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정,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며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 콩우유차들의 현재까지 의 총주행거리는 지구둘레를 수백회 돈것과 맞먹는 1 610여만km에 달하며 수도의 탁아소들과 유치원, 학교들에 공급한 콩우유, 콩산유량은 세상에 나라는 많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높은 콩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 적요구에 따라 매일 공급해주는 나 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사랑의 콩우유차들이 시간에 맞추어 줄지어 달리는 평양의 새 풍경이 생 겨나게 된것도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에 어린이식료품공 장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영양우유생 산의 전문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초원에 흐르는 젖소뗴를 바라보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유 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를 구상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돌아 오시여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축산조건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 의 실정에 맞게 콩으로 우유를 만들 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 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첫 제품이 나왔 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 시여 송수화기를 드신채 《세상에 부 럼없어라》의 노래구절을 흥에 겨워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열화같은 정은 사랑의 콩우유와 함께 아이들 의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 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콩우유생산설비에 대한 자료도 몸소 찾아 보내주시였고 콩우유시제품맛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국 도 친히 보아주시면서 콩우유생산과

가가 맡아키우는것만큼 그들의 건강과 공급정형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 을 돌리시였다.

받아안는 사회주의혜택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후대 사랑에 받들려 높은 수준의 콩우유 종합가공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기 위해 특별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시 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콩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 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 군시기에도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 들에게 콩우유를 정상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하루도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주체 9 0 (2 0 0 1)년 7월 8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을 안으시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시 기에도 콩우유가 정상적으로 생산공급 된데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 서 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이 공 장과 같은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더 많이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난해 12월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은정깊은 조치 에 따라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볼 때면 콩우유를 먹으 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

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 가 풀린다고, 그럴수록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더 잘 받들어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 으로 전변된 인민군대 식료공장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여 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 70돐까 지 공장의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뜨거워만 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속에 지금 평양어린이식료 품공장의 전반생산공정의 현대화사 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우리 아이 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먹이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절절한 소원은 더욱 아름다운 현실 로 꽃퍼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도의 거리 를 달리는 사랑의 콩우유차들의 정 다운 모습에서, 아이들이 행복에 넘 쳐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 래소리에서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 념을 더욱 가다듬고있으며 우리 조 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혁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대양의 성지는 인민을 위한 거룩한 한평생 길이 전한다

금 수 산 태 양 궁 전 광 장 에 서 이 치

꿈결에도 못 잊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천만군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소용돌이 치게 하는 7월 8일,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도 잃고 한 초한초가 몇십년세월같이 무겁게 흐 르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20여년세 월이 흘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7월을 안고 년년 이 해돌이를 새겨온 그 나날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걸출한 위인을 수령 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혁명해 왔는가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 겨준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천만전사, 제자들의 그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7월 8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 고있었다.

태양의 미소가 어려있는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 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의 눈굽을 축축히 적셔 주었다.

얼마나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 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태양의 품 을 찾아오는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 들. 청소년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 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말그대로 그리움의 바다를 이루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국가의 걸출한 령도자이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전세 계가 우리르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감정은 조 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 신 위대한 어버이를 잊지 못하는 인 민의 숭고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금수산태양궁전 팡장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더 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해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사람들은 정녕 우리 수령님들은 존함그대로 위대한 태양



이시구나 하는 격동된 심정으로 쉽 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 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장과 농촌 그 어디라 할것없이 우리 수령님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우에 꽃펴난 전 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그대로 어려 있는듯싶어 격정은 더욱 컸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하루하루를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삼가 머리숙이고 그이의 령도따라 비오는 길, 눈보라 휘몰아치는 길을 헤쳐 오 늘의 영광에 이른 우리 인민이 위대한 태양의 그 품을 그리며 뜨거 운 눈물을 흘린다.

세월의 흐름파 더불어 추억은 점 차 희미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 치는 그리움은 7월과 더불어 더해 만지고 그이를 높이 모시고 끝없는 행복을 누려온 모든 날과 날들에 대 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 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 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 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사람 들은 누구나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 한 한평생이 눈앞에 어려와 걸음을 뗴지 못하였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판 윤 명섭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 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이 이 땅에 마련될 수 있은것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대원수님들께서 바치신 그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생각할 때면 눈물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소박하고 진정이 넘치는 그의 말 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 게 하였다.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을 수호 하시고 만방에 빛내이시기 위해

낮에도 밤에도, 명절날과 휴식일에도 전선길,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

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그 자욱 자욱이 이 땅에 뜨겁게 슴배여있기 에 우리 조국이 온 세상에 찬연히 빛 을 뿌리고있는것 아닌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뿐이였다.

바로 이런 충정의 마음들이 하나 로 합쳐져서인지 금수산태양궁전 팡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

겁게 달아올랐다. 절대로 지어낼수 없는것이 인민의 진실한 감정이다.

Ó

<u>_</u>

O

주신다는 철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 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저 저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 궁전광장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끝없이 나누는것 아니랴.

함께 계시며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는 사람 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것은 단순 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 의 정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드높은 결의가 그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자 위대한 수령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리잡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을 때마 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시던 사랑이 더욱 가슴에 새겨진다고 하 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서강민동 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2]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과학 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학 과학습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 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태양의 성지에서 평범한 근로자들 의 말을 들어보아도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환히 웃으시던 우리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가 슴에 안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 지 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 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치는것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 울 철석의 신념과 의지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 까지 가고가리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터치는 신념의 목 소리이다.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터져나오는 그 힘찬 맹세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일심의 대오가 있는 한 최후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라는것을 다시 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위대한 충정과 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승의 선군혁명 령도와 더불어 태양의 력사는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그 찬란한 력사속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은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이 불변의 진리를 새겨주며 천만전사, 제자들을 품에 안아주고있었다.

> 전 광 남 사진 본사기자 전성 남











화 영 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기록영화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함께 계시여》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가 서 상영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 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 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 의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

막시기까지 일군들의 사업과 얼마전 수도의 창전거리를 지

나는 나의 눈앞에 천리마동상이 우렷이 안겨왔다. 지나온 창조와 건설의 년대기 를 말하여주는 영웅조선의 상징

안겨주는 느낌은 류다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 천리마동상이 나의 가슴에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 속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나아 가는 우리 인민은 모든 난관 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건설한 것처럼 당이 내놓은 위대한 전망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 <u>의의 높은 봉우리를 접령하기</u> 위한 새 전투에서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할것

입니다. » 한달음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 설속의 천리마, 그것을 내 조국 의 현실에 불러오시여 질풍같은 속도를 창조하시고 기적과 변혁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슴뜨거운 사연들이 수록되여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 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일군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헌 신성,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참 된 혁명전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헌신의

로고를 영화는 감명깊게 보여주 고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내세워주시고 인민의 충복으로 성실히 일해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관람 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우 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보며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도록 걸음 걸음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들을 혁명의 기수, 전위투사로 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가슴깊 이 새기였다.

> 영화에 수록된 잊을수 없는 력사적화폭들을 통하여 그들 은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성장하 여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선군혁명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 듬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찬란 한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 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주체 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 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 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을 이룩하신분은 우리 수령님 이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세기적인 락후 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 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식민지노예의 운명 을 강요당해야 했던 수난의 력 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 음, 백걸음으로 내달려 평양속 도,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속도전의 불길높이 로동당시대 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였다. 지축을 뒤흔드는 천리마의 발 구름높이 고립과 압살의 검은 구름을 산산이 흩날려버리고 우리의 국력이 우주에 닿게 하

못 잊을 추억을 안고 조국이 걸어온 력사의 나날을 돌이켜보 는 환한 웃음속에 창창한

던 나는 천리마동상앞에서 발걸 음을 멈추었다.

오늘따라 아득하게 높이 날아 오르는것만 같은 천리마, 그 이름 과 더불어 빛나는 대고조의 전통 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시려고 어버이수령님 인민에게 주신

재부중의 재부가 아닌가. 깊어가는 사색속에 바라본 만수대언덕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거연히 서계시였 다.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부강번영의 화살표를 곧바로 그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도 한손을 높이 드시여 나 아갈 앞길을 가리키고계신다.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주체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력사로 련면히 이어주신 위대한 눈에 뜨이는것은 개선문이 장군님께서 신심과 락관이 넘치

앞날을 축복해주고계신다. 천리마동상, 그것은 단순히 흘러간 력사의 어느 한 시대만 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아니 였다.

조국의 륭성과 부강번영을 위 해서는 전설속의 천리마도 현실 에 불러내시고 인민을 거기에 태워 더 높이,더 빨리 세기의 상상봉으로 오르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길이 전하는 증견자가 아 니라.

천리마동상아래 수풀처럼 일 떠선 수도의 수많은 기념비적창 조물들을 보는 인민의 가슴은 얼마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 로 들먹이는것인가.

그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지게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그날 당시 의 평양공설운동장과 그 주변에 끓어번지던 군중의 재현인듯 높 고낮은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개 선문에서부터 천리마동상까지 넓고 시원하게 쭉 뻗은 대통로 를 따라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 고있었다.

민족의 영웅의 조국개선을 열 광적으로 환호하던 그곳에서 세 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국 에로 솟구쳐오른 내 조국의 상 징 천리마동상까지의 그 길에 오늘도 그리움이 파도처럼 설레 이고있었다.

나는 숭엄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여, 이 길을 무심히

걷지 마시라. 바로 이 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걷고 걸으신 헌신과 로고의 천만리가 다 깃들어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한 영 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최후승리를 향하 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 러운 현실을 대할수록 한생을 바쳐 강력 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지난날 국력이 약하여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 수해야만 하였던 식민지약소민족의 처지에 서 벗어나 오늘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 는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것 아니던가.

이 새겨진 사실,주체적인

동력체계를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일화

등 전력공업발전사와 더불

어 전해지는 우리 수령님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

시여 전력공업부문을

찾아주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 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

의회에 이르기까지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의 전

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 쌓으

신 업적은 참으로 크나큰것

이야기는 끝이 없다.

소 문 없 이 먼 저 찾 으 신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강 선의 로동계급부터 만나주 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 시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보다 보름전에 벌써 우리 수령님 의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력 사적인 현지지도가 진행된 데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체 3 4 (1 9 4 5)년 9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북조선전기총국(당시)을 찾으시였다.

전기는 산업의 원동력이

탄 전 에 서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 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 나이 한 10년만 젊었어 刀 도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보겠다고 절절하게 하신 교시를 잊지 못하고있다.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그 0 이야기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개천, 안주지구 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탄생 6 5 돐을 맞으실 때에 있은 사실이다. 주체 6 6 (1 9 7 7)년

4월 14일 밤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숙소에는 라지 않을수 없었다. 불이 꺼질줄 몰랐다.

조국에 개선하신 우리 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밑천으로서 산업을 부흥시키는데서나 인민들 다고,전기산업이 이처 럼 중요하기에 제일먼저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신 우리

>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전기산업문제는 여러분 들에게 맡긴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길로 어느 한 변전소도

수령님.

돌아보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장에 수력

발전소언제의 장쾌한 모습

한 일군이 그만 주무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을 때였다. 석탄걱정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돌파구로 되는 석탄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아무래도 내가 막장에 들 어가 석탄을 좀 캐보아야 할것 같소.…

너무도 진중하게 하시는 그이의 이야기에 일군은 놀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

생 신 날 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 마음뿐 이지 이제는 안되지라고 하시더니 창가로 다가가시 여 어둠깃든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석탄생 산문제가 오죽 걱정되시였 으면 그리도 마음쓰시겠는 가 하는 생각에 일군은 솟구 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

였다. 다음날인 민족최대의 경 사의 날도 우리 수령님께서 는 탄전에서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다.》 절세 의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우리 한일군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늘도 땅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내 조국의 7월이다. 어버이수령님을 한없 이 그리며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고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낮에 이어 밤에도 쉬임없이 이어진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깊은 밤에도 현지지도 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 다. 》라고 절절히 아뢰이던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지금 이 시각도 수령님을 못 잊어 잠 못 든다. 기나긴 인류력사 의 그 어느 갈피에 우리 수령님처럼 8 0평생의 순간순간을 하루와 같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대중의

하여온 위인이 있었던가.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를수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시 며 조국땅 방방곡곡에 인민사랑의 발자취를 아로새기시던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추억들이 세월의 언덕 넘어 물결쳐온다.

힘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을 령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 였다.》

이민위천, 이 세상 누구도 지녀본 적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좌우명에 대 하여 생각할 때면 수십년전에 있었 던 하나의 사실이 돌이켜진다.

여러날째 어느 한 도를 현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도 밤이 깊도록 문건을 검토하고계시

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나라 대표단의 반영자료를 그이께 올리였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라 국가 수반은 1년에 한두번 국가행사에나 나타나고는 휴양지에 가있기때문에 우리 정부성원들도 좀처럼 그를 만나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쌓아올리신 공적으로 보나 년세로 보나 김일성주석께서 응당 쉬시면서 사업하셔야 한다고 생각

반영자료를 다 보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 나라 국가수반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은 간절한 마 음을 담아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 다. 》라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없 다고, 산에서 싸울 때부터 늘 잠을 적게 자다보니 이제는 버릇이 되여 서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며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는 다시 일감을 손에 잡으시였다.

진정 잊지 못할 그날처럼 늘 조국 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잠시의 휴식 도 없이 불철주야로 헌신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돌이켜보면 항일전의 나날로부터 어버이수령님 언제 한번 편히 쉬신 적이 있으시였던가.

눈덮인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때로 는 사령부천막에서 등잔불심지를 돋구시며 원쑤격멸의 령활한 작전을 무르익히시던 그때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첩첩한 애로와 난판도 앞장에서 헤치시며 건국의 초행길을 열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 켜 전쟁의 시련도 앞장에서 헤치시

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영웅 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나라 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생활이 몰라보게 펴이게 된 때 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휴식을

잊고 헌신하시였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빛내이고 사랑하는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하여 분초를 아끼시며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언제나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 다. 그리하여 그이의 일과는 낮에

이어 밤과 새벽으로 이어지군 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깊은 밤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잘살 방도를 의논해주신 단위는 얼마이며 소문없이 들리시여 뜨거운 어버이사랑 을 부어주신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 무원의 가정은 얼마나 되는가. 진창 에 빠진 승용차를 몸소 미시며 인민 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며 인민소비품 도안들을 보아주시느라 깊은 밤도 잠 못 이루신 이야기, 잠든 주인을 깨울 가 저어하시여 집밖에서 날밝기를 기다리신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모

두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그이께 있어서 명절날, 휴식일은 따로 없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오래동안

국가의 중요부문에서 일해온 한 일 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휴식을

바라면서 우리 인민이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를 삼가 지 어드린 이후 어느날이라고 생각됩니 다. 그날은 토요일이였는데 평양대극 장무대에서는 인민의 념원속에서 태 여난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 며 울려퍼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수도의 거리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조용히 달리고있었습니다. 일요일을 앞둔 토요 일 그밤에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현지 지도의 먼길을 떠나시였던것입니다.

박 차안에서 보내시고 다음날 새벽 에야 목적지에 도착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이 먼길에 쌓인 피로를 잠시 나마 푸실것을 절절히 말씀올렸건만 수령님께서는 곧장 현지에서 그곳 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이렇게 일해

오시였습니다.》 사람들이여,인류력사에 우리 수령님처럼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 로 분투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그런 위인이 있었던가.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시계에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도 넣 어 시간이 되면 울리도록 해드렸건 만 우리 수령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인민의 고무로,기대로 여기시고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며 헌신하신줄 우리 진정 알았던가.

어느해인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 환공연무대에서는 외국의 한 녀가수 가 부르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 다》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깊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 이 이어가시며 그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뜨겁게 안겨오고 수령님께서 단 하루 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민의 념원이 흘러넘치는 노래 는 첫 순간부터 관중의 심금을 틀어 잡았다. 노래가 끝나자 《수령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라고 격정을 터치는 너가수의 목소리가 장내 에 울려퍼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손을 흔들어주시자 온 극장안이 세찬 격정

의 열기로 끓어번지였다.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진정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더없이 귀중하기에, 우리의

어버이수렁님께서는 그날밤을 꼬 혁명위업이 그렇듯 성스러운 위업이 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한평생 심장속에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한 그길에서 고귀한 한생을 빛내이시였다. 57만 8 000여km.

>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이 해방된 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근 반세기동안 이어가신 현지 지도로정의 총연장길이를 우리 어떻 게 쉽게 외울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높이 줄기차게 달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헌신의 심원한 세계가 비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 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강성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 고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뗘섰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우리 조국은 그 모습을 더 욱 일신하고있다.

자정이 넘도록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끝없이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다시 금 새겨안고있다.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려 는 인민의 마음을 담아 충정의 노래 더 높이 울린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수령님 수령님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 위치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 가시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주체 3 6 (1 9 4 7)년 4 월 어느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 모형 사판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 였다.

모형사판을 보아주신 위대한

耳

11

ō

자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대학은 건물도 중요하지 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 면서 대학의 위치는 공기도 맑 고 경치도 아름다운 대동강기 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좋 겠다고,대학주변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알맞게 꾸려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였다.

이처럼 새 교사 위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신 떨치고있다.

몸소 잡아주신 서해갑문위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위치때문에 몸소 배를 타시고 남포앞바다로 나가시 였다.

갑문위치를 놓고 누구보다 사 색과 탐구를 깊이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심하신 만년대계 의 리상적인 갑문위치는 은률군 의 끝살뿌리와 피도, 광량만 입구사이를 가로지르는 위치였 다.그이께서는 갑문위치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였던것이다.

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하신 갑문건설예정위치에 이르렀을 때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흥분 으로 설레이였다.대동강물과 바다물이 뚜렷한 계선을 이룬 여기에 갑문을 건설하면 감탕퇴

룡남산에 일떠선 인민의 첫 대학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당자리 를 직접 고르고고르시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밟아보신 곳은 한두곳이 아니였다.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어느날 숲속을 헤치시며 오랜 시간을 바치시여 룡남산기 슭에 대학을 앉히도록 자리를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 의 첫 대학으로 그 터전을 잡아 주신 명당자리,

바로 이 뜻깊은 자리에 해방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웅장하게 건설한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가 일떠섰다.

룡남산은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숭엄히 전하 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이름을

주체 7 0 (1 9 8 1)년 5월 적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될것이 아닌가.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갑문위 치가 확실히 명당자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갑문언제가 륙지와 섬에 의탁하게 되기때문에 그야말로 만년대계의 든든한 구조물로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탕퇴 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였 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

올리였다. 일군들과 전문가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천리혜안의 과학적 인 통찰력으로 풀어주시여 명당 자리에 갑문을 앉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해방후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그날로부터 나라의 주체적인 금속공 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심혈의 세계는 그 얼마이 며 찾고찾으신 공장, 기업소들은 그

얼마이던가. 위대한 헌신의 나날들에 수놓아진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이야 기를 전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자립적인 철생산, 주체철생산을 우리 나라 금속공업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

주체 4 7 (1 9 5 8)년 1 2 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저녁 어버이수렁님께서는 당시 금속공업성에서 사업하고있는 두 일군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 금속공업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생각에는 어떤가고, 우리 나라에서 콕스를 쓰지 않고 제 철할수는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에 두 일군

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한 일군이 야금업발전의 수 백년사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야금업 의 추세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였다.

결국 제철은 콕스가 있어야만 한

다는것이 그 일군의 립장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신중하신 어조로 동무말대로 지 금 용광로는 콕스탄을 먹게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만약 제철법을 먼저 발전시킨 나라에서 콕스탄이 나지 않았더라면

인

였고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언제

다른 방법이 나왔을것이 아닌가고, 봉 건통치배들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산 업혁명을 하였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도 무연탄을 가지고 제철하는 방법이 나 왔을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너무도 명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그 일군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대야금업이 콕스를 연료로 하여

스탄이 나오는 나라에서 발전되여온 사정과 관련된것이였다. 만일 그것이 콕스탄이 없는 나라

에서 발전하였다면 다른 방법이 있 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콕스에

라고 여겨왔고 그것을 서슴없이 어버이수령님께 말씀드렸으니 참으로 무식하고 외람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자책감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렁 우렁하신 음성으로 문제는 어떻게 생 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자기 힘을 믿 고 자기의 원료와 자기의 기술로 자 기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확고한 신념 만 있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강조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콕

가지고 제철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아 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철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가는 데 지금상태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자신께서는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1950

스탄을 쓰지 않고 갈탄이나 무연탄을

년대에 우리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 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혔다.

어찌 그뿐이랴. 1960년대 사회주의시장이 존재 하여 우리 나라에 콕스탄이 잘 들어올 때에도 늘 일군들에게 앞날을 생각하 지 못하고 지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있는 데 앞으로 목마를 때 가서 우물을 퍼 려고 하면 늦는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물을 파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발전하게 된것은 분명히 그것이 콕 주시였으며 그 시기에 청진과 성진제 강소(당시)들에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험기지들을 꾸리도 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에 우리 식의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의한 제철법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이 애국헌신의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

> 수 있으라.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 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주 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정력적 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진제강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간절히 념원하시던 주체강철이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수령님께서 이 자랑스 러운 창조물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면서 주체 철에 의한 우리 식의 제철제강법의 대성공은 수령님의 주체철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라고 크나큰 격정에 넘

쳐 교시하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이 땅우에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은 갈리시였다.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무릇 휴식일이라고 하면 긴장한 사업과정의 피로를 풀고 생활을 즐 기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없어서 는 안될 쉬는 날로 여겨지고있다. 그래서 누구나 일요일과 명절날을 기다린다.

인간생활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로 되여있는 이 휴식일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에는 어떻게 흘렀는가.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였던 주체 8 3 (1 9 9 4)년 의 일요일과 많은 명절 날들을 인민을 위해 고

스란히 바치시였다. 근 7년세월과 맞먹는 2 530여일의 일요일

과 명절날들. 그 하루하루마다에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남모르는 헌신의 낮과 료해하고 인민들도 만나보고싶습 없이 이어지는 헌신속에 우리모두 밤을 이어가시던 거룩한 자욱자욱이 얼마나 눈물겹게 새겨져있고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얼마 나 소중히 담겨져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인민 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 언제인가 한 일군이 이런 이야기

를 들려준적이 있었다.

어느해 일요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일찍 그 일군을 부르시여 강서 와 룡강, 온천지구의 몇개 단위를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 다. 며칠째 계속 밤늦게까지 일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피곤을 푸셨으면 하는 생각이 앞섰 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만 이라도 좀 쉬시고 오후에 떠났으면 하는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 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내가 언제 일요일이라고 하여 집에 있어본 일 전 그 환하신 웃음속에 휴식일을 이 있습니까, 여느때는 일이 바빠 즐기는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명랑 7월 8일까지 무려 2 530여일 현지에 자주 나가지 못해도 일요일 한 웃음소리가 밤깊도록 그칠줄 일로,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사색과

니다, 나에게 이이상 더 만족한 일

요일은 없습니다, 이게 내 휴식입

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더 가까와지시는 즐거운 날이였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일요일이였 고 휴식날이였다. 그날은 인민들과

바로 그 일요일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도 미루시고 청산

리와 옥도리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

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온 하루 인민들속에

계시였다.밤에는 또 밤대로 그해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일군들앞

에서 하실 강의 《우리 나라 민주

한다.

사업하시였다.

온 나라가 즐거운 휴식날의 한때 를 보내는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조용히 행복의 미소를 지으시였고 그 기쁨으로 겹쌓이는 피로를 이겨 내시며 한밤을 지새우시던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지금도 가슴 가슴마다에 꽉 차있는 우리 인민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이 못내 기쁘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지으시

는 그 어느날보다도 포근한 요람

정녕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한평생

의 그 2 530여일의 일요일과

명절날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에게

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사랑의

휴식 아닌 휴식일, 인민존대의 평범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그 눈물겨

운 휴식일에는 항일의 혈전만리길에

서 젖은 행전을 말리울새도 없이 건

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새벽길도

있고 전화의 나날에 이어가신 잊지

못할 현지지도의 길도 있다. 우리 인

민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해 찬눈비

속에 깊이 잠들군 하였다.

한 로동일이였다.

마지막시기였던 주체83(1994) 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 장을 찾으시여 걸으시던 포전길도 있다.

세상에 정치가들은 많아도

자신을 인민의 복무자로 여기며 이 렇듯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수천수백 일의 휴식일을 바친 위인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력서에는 일요일과 명절날들이

휴식일로 표시되여있어도 우리 수령님의 한생에는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신 헌신적인 로동

탐구의 련속적인 하루 하루로 새겨져있어 우 리 조국은 오늘처럼 강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일떠설수 있었고 인민 은 수령복을 누리는 행

복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하기에 해마다 7월 8일을 맞을 때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와 잠 못 이루는 우리 군

대와 인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그 2 530여일은 오늘도 인민의 마 음속에 깊이 새겨져 력사에 더욱 빛

나고있다.

2 530여일의 휴식일,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헌신의 한평생을 전하는 이 사연깊은 날들 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더욱 충정으로 받들기 위해 심장 을 불태우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 못다 바친 충정까 지 합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단 하루 의 휴식일이라도 마련해드리고싶어. 본사기자 김 준 혁

이 께 서 녆

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 를 맞으시며 넘고넘으시던 수많은

지 경험에 대하여》를 준비하시느 고개와 험한 령길들에 새겨진 가슴

라 새날이 밝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뜨거운 이야기들도 있고 생애의

에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 현실을 몰랐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끊임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 돌보시네

> 수령님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련만 베푸시네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나라의 북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삭주직물공장을 여러차례 나 찾아오시여 친어버이의 사랑 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저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장 을 찾아주신 주체 54 (1965) 년 8월의 그날에는 비가 내리 고있었다. 직포작업장으로 가시여 녀 성로동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아주 시고 우리가 생산한 제품도 보아주시 며 공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 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로동자 들이 다 가정부인들인가고 물으시였 다. 저는 선뜻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사실 그때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 도 높아지다나니 처녀들도 적지 않게

받았던것이다. 저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정부인들을 사회에

로선과 정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기에 가정부인들로 오신 길 또 오시여 사랑만 조직된 전국적인 모범공장을 꾸리자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

적극 진출시키라는것은 우리 당의

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떠나 실 때에도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무거운 임무를 맡기고 떠나는데 앓 지 말고 일을 잘하라고 뜨겁게 당부 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하셔야 할 일도 많고 가셔야 할 곳도 많으신 어버이수령님, 멀고 험한 북변땅을 여러차레나 찾아주시고 우리들의 사 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 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 던 위대한 어버이의 한없는 그 사랑 을 어찌 잊을수 있으라.

비록 나라의 북변 한끝에 살아도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성 장한 그 나날을 정녕 못 잊어 오늘도 《우리 수령님》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 는 우리들이다.

> **식주직불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박 성 실

╸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 방시켜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 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1968 년말에 건설되여 운영을 시작 한 크지 않은 단위이다. 이 평범한 일터에도

우리 중성밥공장은 녀성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주체 58(1969)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 시에서 시범적으로 꾸린 밥공 장을 본보기로 하여 그것을 전

국적범위에서 일반화하시기 위해 몸소 우리 밥공장을 찾으 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밥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민들에게 밥은 어떻게 공급하며 떡과 국수는 어떤 방법으로 교환해주는가, 가공비는 얼마이며 종업원은 몇명인가, 밥공

장주변에 주민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

였다. 그러시고는 밥공장을 위생문화적 으로 알뜰히 꾸려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 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느 한 아빠트에 자리잡은 밥굥급초소에도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밥공장에서 여기까지 밥을 날라다 공급하려면 밀차같은것 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대책 까지 세워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식생활 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주 민지대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크지 않은 우리 밥공장까지 찾아주시였겠

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녀성 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 방시킬것을 내용으로 한 3대기술혁 명과업이 제시되여 세상사람들을 놀 래웠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과 은정속에 평양시를 비롯한 온 나 라의 이르는 굣마다에 우리 중성밥 공장과 같은 인민을 위한 봉사시설 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중구역종합식당 중성밥공장 전 길 선



어버이수령님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제일

행복동이들의 고고성이 전하는 이야기

연 혁 소 개 실 에 서

민사랑, 후대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은정속에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

기에 몸소 현대적인 유선종양

연구소설계도면을 보아주시며

우리 녀성들을 위한 또 하나

의 치료기지를 마련해주시려

고 마음쓰신 인민사랑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유선종양연

구소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

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에 나오시

여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아

니라 우리 녀성들의 건강과 예

방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이

라고 하시며 세심히 마음쓰신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은 최

신식 다목적렌트겐과 CT 등 첨

단의료설비들과 입원실의 액정

텔레비죤과 랭장고들 그리고

란간기둥들과 란간대들, 층계바

닥의 옥돌들마다에도 뜨겁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솟아난 평양산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현대의

학과학발전추세,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리상과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의 내용과 그 질적수

준이 최상의 높이에서 부단히

풍부화되고 개선향상된, 누구나

/>>>>>>

경애하는 원수님.

어리여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굣하

주시였다.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세계의 진보 적인사들도, 적들의 반공화국선 전에 넘어가 우리에 대해 반신 반의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감 탄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곳이 있다. 온 나라 녀성들이 친 정집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안기는 평양산원이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그날에도 친정집앞마당은 귀여운 아기를 안은 가족들과 아기어머니들. 그들을 태우고 갈 승용차들로 하여 설레이고있었다. 승용차들 의 문은 열려져있었으나 아기어 머니들은 두팔벌리고 높이 솟은 사랑의 집을 이윽토록 바라보며 쉬이 차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감동속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를 평양산원 일군인 문창운 동무가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로 이끌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 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 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라나고있습니다. »

평양산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 을 담은 두상의 사진문헌을 방 정 면에 정중히 모신 연혁소개실에 들어서니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전하여주는 직관판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위대한 나라 녀성들의 친정집 — 평양산

양 산 원

원》, 《조국의 미래가 태여나는 행복의 집》.《어버이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속에 현대적인 녀성종 합의료봉사기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온 나라 녀성 들이 찾는 사랑의 집》…

평양산원에 깃든 위대한 사랑 의 전설들을 일목료연하게 전하 여주는 직판판들에서 눈길을 뗼 줄 모르는 우리에게 문창운동무 는 이야기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이 있어 평 양산원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 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만 방에 과시하는 최상급의 종합적 인 녀성의료봉사기지로 꾸려지 게 되였습니다. …》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우리 녀성들의 존엄과 지위, 그 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이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0년대말 우리 녀성들을 위하여 훌륭한 산원을 건설할 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 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 (1979) 년 2월 산원건설 을 발기하시고 여러차레나 현 지에 나오시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여 세계최상급 의 산원이 일떠서게 하시였다. 1980년 7월 평양산원이 일 떠 선 후에도 위대 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항일의 녀성영웅 안으시고 수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차 례에 걸쳐 최신식의 조산아집 중보육기들과 현대적인 의료설 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시였 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유선 암촬영기, 수자식렌트겐설비, 3차원복부초음파진단기, 륜전 기재들을 비롯하여 많은 현대

기구들을 보내주시였다. 평양산원 의료집단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바란다는 뜻깊 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여 그들 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과 사 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 활력을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이 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적인 의료 및 경영용설비들과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을 안 고 평양산원 의료집단은 산원안 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벌 려나가는것과 함께 15만여차 에 달하는 구급왕진을 하였으며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백두산기 슭의 산골마을로부터 분계연선 마을들과 외진 섬마을들에 이르 기까지 온 나라 곳곳을 찾아가 현장의료봉사를 높은 과학기술 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지방 에서 태여난 세쌍둥이들과 그 산모들의 후송을 위해 16차 에 걸쳐 사랑의 비행기가 날았 으며 달리는 소생실로 불리우는 평양산원 구급차가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랑의 경적

오고싶어하고 와서는 쉬이 뜨 지 못하는 현대적인 녀성종합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 병원, 세상에 둘도 없는 애기궁 전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지 게 되였다.

《진정 평양산원은 우리 인민 들과 녀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영원한 인 민사랑, 후대사랑의 기념비입

문창운동무의 긍지에 넘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 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가. 세상에 나라가 많고 나라마 다 그 발전수준을 자랑하는 의 료기지들이 있다 하지만 평양산 원과 같이 온 나라 녀성들이 친 정집으로 여기고 스스럼없이 달 려와 안기는 그런 의료기지가 또 어디에 있을것인가. 이 세상 에 수십억의 녀성들이 있다 하 지만 이런 사랑의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기를 낳고 치 료를 받는 녀성들이 또 어디에 있을것인가.

문득 우리의 귀전에 아기의 고고성이 울려왔다.

더 밝고 아름다운 래일을 부 르며 힘차게 울려퍼지는 새 생 명의 고고성은 이렇게 웨치는듯 싶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 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 속에서 받아안은 새 삶을 부러 워하라!

본사기자 김치 관

황 해 제 철 련 합 기 업 소 로 동 자 합 숙 에 서

철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였다.

기업소정문을 나서서 ズ 얼마쯤 걷느라니 한여름 의 싱그러운 저녁대기를 흔들며 어디선가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 리 인민의 한없는 그리 움과 경모의 정을 담은 노래 《수령님 그리는 마음》이였다.

어느 일터. 어느 가정 에서나 수령님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잠 못 드는 ○ ▼ 7월 철의 도시의 저녁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 는 우리의 발걸음을 저 도모르게 그곳으로 이 끌어갔다.

경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뜨거 운 인정미와 한없이 겁 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따

O 뜻이 대해주고 보살펴 주시였다. 》 노래의 주인공들을 찾 아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합숙의 어느 한 방 에 들어선 우리를 기타반 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

던 여러명의 합숙생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노래소리에 이끌려 찾아왔다

는 우리의 이야기에 강철직장 용해공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7월이 아닙니까. 언제나 그

얼마전 우리가 황해제 러하지만 못 잊을 7월이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 로 더더욱 잠 못 드는 우리들입

> 그는 이 방이 뜻깊은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날이 밝도록 로동자합숙생들과 무릎을 마주 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던 사연깊 은 방이라고 뜨거욲에 젖어 이 야기하였다.

>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 5 4 (1965)년 1월 중 순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 으시고 여러날째 황해제철소 (당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 느날 깊은 밖 제철소 로동자합 숙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날 교대작업을 마치고 돌아

온 로동자합숙생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 을 하는가, 나이는 몇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기능은 몇급이 며 한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받는 가, 하루일을 끝낸 후 생활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등을 물어주시며 고기와 남새, 간장과 된장공급정 형에 이르기까지 합숙생들의 생 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합숙생들이 사용하는 이 불과 베개를 가져오게 하시고 몸소 이불솜의 질도 가늠해보시 며 이불을 누벼주어야 솜이 뭉치 지 않는다고, 부양가족들로 가내 반을 무어 꼭 이불을 누벼주라고 합숙일군에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합숙을 다 돌아보시였을 때는 새날이 가까와 올무렵이였다. 결국 수령님께서는 정월의 추운 한밤을 꼬박 황철 의 로동자합숙방문으로 보내시

였던것이다.

그후 어버이수렁님의 다심하 신 사랑과 은정에 의해 황철의 로동자합숙에는 침구용면천 수만m와 책장, 옷장, 신발장, 의 자, 식탁 등 생활필수품과 가구 는 물론 화물자동차까지 보장되 여 합숙생들의 생활이 근본적으 로 향상되게 되였다.

《하루일을 마치고 합숙호실 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 는것만 같아 가슴이 젖어들군 합 니다. 정말 우리 황철의 로동자 합숙이야말로 친어버이사랑과 정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우리들 의 정든 보금자리입니다.》

격정에 넘친 용해공청년의 말 이였다. 그는 일찌기 우리의 세 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 시며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합숙생들의 생활을 친부모, 친 형제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합 숙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해 긍 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정녕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가장 소중한 추억.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자애로운 사랑, 크나큰 믿음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들을 몇백, 몇천밤을 새운대도 어떻 게 다 전할수 있겠는가, 사연깊 은 합숙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 에 황철의 로동자합숙생들이 하 던 말이 떠날줄 몰랐다.

《우리 로동계급을 제일로 아 끼고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 고 더 높은 생산성과로 내 조국 을 받들어가겠습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0 >>>>>>



화원속에 꽃피는

해주시 영광동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손충선로인은 지난해 70돐생일을 맞이하

그때를 기념하여 찍은 사진 에는 인민보안원들의 모습도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을 손충선로인의 가족, 친척 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그들은 손충선로인을 알게 된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 고있는 김은정동무를 비롯한 황 해남도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

뜨거운 진정을 안고 이어진 날과 달들속에는 새 벽지를 안고 손충선로인을 찾아와 도 배도 곱게 해주면서 친혈육의 정을 나눈 날도 있고 급병으 건강회복을 위해 귀한 보약을 때로부터 지난 20년간 그의 안고 달려온 못 잊을 밤길도

명절날, 생일날을 비롯하여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때없이 영예군인의 집을 찾으 며 그의 70돐생일상도 성의 껏 차려준 그들을 가리켜 사람 들은 영예군인의 아들딸들이라 고 정답게 부르며 이 땅에 미 덕의 화원을 꽃피워준 어머니 로 앓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

본사기자 리건일

뒤흔든 언제인가 우리 나라의 어느 한 지방병원에서는 사경에 처한 한 로동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 세상에 공포되였다. 수술이 진행되였다. 거기에 참

가한 의사들의 수는 원사, 교 수, 박사를 포함하여 10명이 나 되였고 치료에 사용된 약품 다 전 김∮들은 무려 72종, 환자에게 수 자 _진 혈된 피는 5.7L로서 이 모든 것이 무상으로 환자의 몸에 흘 러들었다.

간단한 진단 하나 받는데 수백US\$를 내야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평범한 로동자가 무 료로 이런 수술을 받는다는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우리 조국땅에서는 사람들 누 구나 자기의 치료비를 계산해본 일이 없으며 치료비를 모르고 치료를 받는것을 범상하게 여기 고있다.

무상치료제, 그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 에서 조국이 가장 큰 시련을 겪 던 시기 이 땅에 태여난 인민적 시책이다.

1952년 11월 13일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 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

폭음이 그칠새 없고 화염이 솟구치던 그때 조선에서 공포 된 이 내각결정을 두고 세계언 론계는 격찬을 금치 못하며 전 쟁광신자들을 이렇게 야유하

《미국은 줄폭탄으로 조선을 황페화시키고있지만 조선은 원

조선포도에 깃든 사랑

우리 수령님의 로고에 대해 돌 이켜볼 때마다 가슴뭉클 젖어드 는 생각이 있다.

조선포도, 어린이들에게 맛좋 은 포도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의 세심한 관심과 은정속에 태여난 과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나라에서 새로 육종한 포 도나무를 금수산의사당(당시) 주변에 심도록 하시고 여러해동 안 친히 재배시험을 하시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빠 짐없이 조선포도의 생육상태와 특성을 관찰하시고 세심한 자탄 10개와 맞먹는 〈203 호〉대폭탄으로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는 백 배의 힘을 주고 원쑤들에게는 복수의 폭탄이 되여 철추를 내린 내각결정 제203호의 공포!

그것은 진정 근로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이 내리실수 있는 인간사랑의 대결단이였다.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신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 그렇게 판심하시고 키워오신 포 도나무들에 첫 열매가 주렁졌을 때에는 포도밭에서 딴 열매를 맛 보시며 어린이들에게 맛좋은 포 도를 먹이고싶었는데 이제는 그 소원이 풀렸다고 더없이 기뻐

> 하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 에 사연깊은 포도는 수도의 탁 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 되였으며 그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오늘도 년년이 이어지 고있다.

선포도에만 깃들어있는것인가.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사랑의 콩우유를 싣고 달리는 왕차 그 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아이들에게 줄 첫 물과일을 실은 자동차를 볼

시 골 로 인

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께 지성껏

그 로인이 올리는 돗자리를 감 사히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가정래력을 일일이 알아보 시고나서 마을에서 농사짓는데 곤난한 점은 없는가고 물으시였 다. 수령님의 물으심에 로인은 우리 고장에서는 농사철에 물을 한번 흔하게 써보았으면 하는것 밖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고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 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1 9 4 7 년 8월 어느날 안주 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찾아온 한 로이이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제땅을 가지고싶어하던 농민 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신 돗자리를 삼가 드리고싶어서 였다.

말씀올렸다.

있어 이 땅에선 수많은 조선 포도들이 아이들의 가슴마다 에 끝없이 안겨지게 되리라 는것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인에 그 사랑, 그 은정이 어찌 조 게 소원대로 머지않아 안주지구

에 큰 관개공사를 하게 된다고,

공사가 다되면 그 벌에 사는 사 람들은 물걱정을 모르게 되며 열두삼천리벌은 농사짓기가 제 일 좋은 고장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시골로인의 소망은 현실로 펼 쳐지게 되였다. 1948년 1 0월 1일 열두삼천리벌을 정복하기 위한 관개공사의 첫 삽을 박았던것이다. 그후 전국 적판도에서 관개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이 나라 농민들의 평생소원을 헤아리시고 이 땅에 관개력사의 새 장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을 적시 며 흐르는 물길들에는 이렇듯 뜨거운 어버이사랑의 전설이 새 겨져있다.

일 성 동 김정일동지의

몽골 대통령특사일행 경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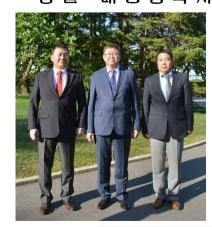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8일 몽골 대통령특사와 일 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 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대 통 령 특 사 일 행 도 착



은산군 령대로

있는 장옥녀, 리순덕, 김옥희

로인들이 날로 뜨거워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절세의 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와 영생탑

주변관리사업에 지성을 다하고

2 1 년전 7월의 그날

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몸부 매일과 같이 주변관리사업을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동자구에서 살고

【평양 7월 8일 조 선 중 앙 통 신 】 담빈 간호야그 외무 국무비서와 일행 8일 평양에 도 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몽골대 사판 성원들이 맞이하

림치던 그들이였기에 탄광지구

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

모자이크벽화와 영생탑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이 진

행될 때에도 로인들은 집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고

남먼저 현장으로 달려나와 공

사참가자들을 고무해주군 하였

으며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는

4 0 여년을 하루와 같이 유선탄광 운수중대 수리 소대장 윤영인동부는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수리에서 제기 되는 부속품들을 제때에 가공하 여 보장해줌으로써 운전사들이 맡은 수송임무를 성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지난 기간 소대의 신입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 이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많은 기능공들을 키워냈다. 하기에 탄팡의 일군들과 탄부 들은 그를 가리켜 탄팡의 보배라 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박 인 서

도맡아 진행하 고있다.

그들은 해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판목들도 정히 옮 겨심고 정성껏 가꾸고있으며 많은 관리도구들을 마련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들 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로 인들이여서 탄광사람들은 누구 나 따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회고음악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회고음악회 《영원한 인민의 추 억》이 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음악회장소는 조국의 륭성번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시여 주체혁명위 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 생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민족재생의 은인,건국의 어버이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 동당의 창건자,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과 경모의 정이 장내에 굽

이치는 가운데 관현악과 합창

전인민적송가 《충성의 노래》

가 울려퍼지였다. 이 땅의 험한 산발들을 넘고 넘으시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수만리길을 헤쳐 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7월의 음악회장에 울리는 노래

는 더더욱 절절하였다. 무대에는 설화와 음악 《민족의 은인》,혼성합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남성3중창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 녀성2중 창과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혼성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만 여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쳐부 시는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 로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뗘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열

렬히 칭송하였다. 추억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 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 며 관람자들은 절세의 애국자, 러운 혁명생애와 위인적풍모를 가슴깊이 되새겨보았으며 불면 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반만 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조 응적기상을 만방에 떨쳐온 영광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 치 못해하였다. 어버이수령님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출연자들은 설화 와 음악 《우리 수령님》, 남성 저음독창 《초소 에 수령님 오셨 네》,녀성독창 《포전길 걸을 때면》, 녀성3중 창 《오직 한마 음》, 녀성독창 과 합창 《그리

움의 대하》 등

의 종목들을 감

이민위천을

명깊게 형상하 였다.

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랑의 자욱을 수놓 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 마다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 수가 터져나오고 뜨거운 격정

이 굽이쳤다.

혼성합창 장군님은 한분이시네》를 들으 위대한 혁명가,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 을 높이 모시고 주체조선의 영

높이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 는 지향이 담긴 설화와 음악

《태양의 위업은 영원히 빛난

다》, 녀성8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대중창과 합창 《천

리라도 만리라도》로 음악회는

절정을 이루었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진 행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백승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리라는 확신 을 안겨준 음악회는 혼성합창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 계시네》로 끝났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 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 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물동수송이자 언제의 높이,증송의 경적소리 힘차게 울리며 달린다

에 년 소 전

전속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 사상 그중 불리한 자연지리적조 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 대한 공사대상인 백두산선군청 년발전소건설장에서 속도전청 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지휘 판들과 돌격대원들이 증송의 경 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백암으로, 혜산으로, 무산으 로 뻗은 굽이굽이 경사급한 도 로를 따라 낮에 밤을 이어 대형 자동차들을 몰며 달리고 또 달 리는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 들모두의 마음속에는 오직 완공 의 그날로 향한 하나의 직선주 로만이 굳게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 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 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 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 입니다. »

지난 5월 11일 오전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사랑의 룡마를 몰고 백두대지의 발전소 건설장으로 달려온 대대에 전투 명령이 하달되였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작전에 따 라 언제좌우안에서 타입전투가 동시에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골재수송을 한시바삐 따라세워 야 하였던것이다.

수천리길을 달려온 피로가 겹 쌓였지만 대대장 김호걸,정치 지도원 박봉남동무들은 대원들 에 대한 믿음을 안고 힘차게 대 답하였다.

《알았습니다.》

지휘부에서 내세운 목표는 자 동차 대당 하루 7탕, 그러나 대 대의 운전사들은 스스로 10탕 목표를 내걸고 유평지구의 골재 수송전투에 한사람같이 펼쳐나 섰다.

데 2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이 들었다. 1 0 탕목표를 내건 대 대의 운전사들에게는 잠잘 시간 조차 차례지지 않았다. 교대운 전사들이 미처 도착하지 못한 조건에서 며칠이 지나서부터 모 두가 입술이 트고 이몸이 들뜨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심장에 뜨겁게 새기고 성스러운 백두대지의 발전소건 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그들이기 에 누구도 운전대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운행길에는 곡선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완공의 그날로 향한 직선주로만이 있 다!우리가 달리는 운행주로만 큼 언제가 솟는다.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의 구두 선동은 운전사들의 마음속에 애 국충정의 열의, 보답의 의지를 열백배로 북돋아주었다.

1 소대의 리정, 김성철, 윤영 수동무들과 2소대의 김영남, 허성국동무들이 증송투쟁의 앞 장에서 내달렸다. 가장 주되는 애로는 졸음이였다. 충혈된 눈 을 비비며 달리느라면 겹쌓인 피곤이 파도쳐 밀려왔다. 그때 마다 운전사들은 차를 세우고 개울가로 달려갔다.

새벽이면 발도 잠그지 못할 정도로 찬 개울물은 졸음을 쫓 는 가장 좋은 명약이였다. 이렇 게 운행길을 이어가며 15리마 다 차를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 는 그 순간순간은 그들모두의 마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 두의 칼바람정신을 굳게 벼리여 주었다.

하루 한탕만 더, 이렇게 스스 로 높은 목표를 내걸고 달리고 또 달리는 대대의 운전사들에게 는 짧은 식사시간도 천금처럼 귀중하였다.

수송전투가 시작된 며칠후부 굽이가 많고 구배가 심하여 터 후방일군인 김종학동무에게 왕복 100리길을 한번 오가는 는 남다른 고충이 생겼다. 운전

고있다.

사들이 연유를 보충하는 아침시 간에 하던 식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입술이 트고 피곤이 몰려 밥을 씹는것 이 아니라 물과 함께 삼키는 운 전사들, 탕수를 늘이겠다고 그 나마 점심과 저녁식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의 후방일군들처럼 밥배낭을 메고 전투현장으로!

이런 결심밑에 그는 골재장 에 화선식으로 식당을 차려놓 았다. 그곳에서 짐싣기순서를 기다리는 자동차들에 올라 운 전사들에게 밥과 국을 안겨주 는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것 이 흘렀다.

이렇게 백두의 넋과 기상안고 모두가 분발하였기에 대대의 일 수송실적은 나날이 더욱 높아졌 으며 좌우안언제는 하루가 다르 게 키를 솟구쳤다.

결사관철, 그길에는 그 어떤 조건타발이란 있을수가 없다. 지난 5월말 대대앞에 왕복 500리가 넘는 세멘트수송임 무가 떨어졌다. 아직 기동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 도 때없이 오는 조건에서 대대 지휘성원들은 있을수 있는 정황 을 예견하여 일부 자동차들에 혼석을 싣고 출발하였다.

운행로정을 절반도 못 가서 어느 한 산골짜기에 이르니 물 이 불고 나무다리는 파괴되여 있었다. 적지 않은 자동차들이 발목이 잡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대대장이 즉시 온 대오에 다

리복구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1 소대장 최정, 2 소대장 엄명 철동무들이 앞장서 물속에 뛰 여들었다. 지체없이 주변의 림 산작업소에 달려가 통나무를 날라온 운전사들이 하나같이 떨쳐나 다리복구전투를 벌려나 갔다. 한구간한구간 보들을 교 체하고 그우에 싣고온 혼석을 한차한차 부리였다. 돌격대원들 의 헌신적인 투쟁에 감동되여 다른 단위의 운전사들도 합세 해나섰다.

하루품을 들여야 한다던 다리 복구를 불과 2시간만에 해제낀 대대는 또다시 세멘트운반을 위 한 행군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멀고 험한 생소한 운행길을 결 사관철의 의지로 헤쳐나가며 그 들은 드디여 위연역에 도착하였 고 그밤으로 백수십t의 세멘트 를 건설장까지 무사히 수송해내 고야말았다.

백두대지에 달려온 그 순간부 터 오늘까지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운행길의 하루하 루를 포성없는 전투의 날과 달 로 여기고 오직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 직선주로로만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불파 50여일간 15대의 자 동차들이 나른 골재수송실적 1만 4천m³이상,세멘트수송실 적 4 000t이상, 자동차당 평 균주행거리 1만km, 최고주행거 리 1만 3 000km, 이 수자들 만으로도 우리는 이곳 운수대대 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이 낮 과 밤이 따로 없는 수송길에 새 겨온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가 슴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 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속도 전청년돌격대지도국 유수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오늘 도 건설장적인 수송부문의 앞 장에서 증송의 경적소리를 높 이높이 울려가고있다.



8. 2 8 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날에날마다 새로운 지난 시기에 비해 몇배로 높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 아진 수송계획을 수행하자면 결 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 정적으로 자동차들의 수리기일 을 앞당겨야 하였다. 발전소건설장에 오면 순간도 쉴새없이 수송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려단 의 길을 달리고달리는

송전사들속에는 8.

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 일군들과

려단일군들과 돌격대

원들은 완공의 날을 앞

당기는 주인은 바로 자

신들이라는 높은 자각

을 가지고 수송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감으로

써 5월에 이어 6월에

햇하는 빛나는 위훈을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

《청년들은 백두산

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청년발전소건설

과 북부철길개건보수

공사를 다그쳐 끝내

며 거창한 대자연개

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려단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판철하기

위한 수송전투에 진입

하였을 때 적지 않은 난관이 막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들

이 오래전부터 공사에 동원된것

으로 하여 이제는 거의다 대보

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

아나섰다.

야 합니다.》

도 전투과제를 넘쳐 수

떨치였다.

겻

돌격대원들도 있다.

일군들은 발전소완공은 자신들 미더운 수송전사들을 에게 달려있다는 주인다운 자각 볼수 있다. 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갈 결심을 총포성은 울리지 않 굳히였다. 자동차수리정비에 필 아도 싸우는 고지에 탄 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 약을 실어나르는 심정 하여 려단자체의 힘으로 수리동 으로 만년언제에 열혈 력기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가 의 심장을 묻어가는 수 토의결정되였다.

> 물동수송만으로도 눈코뜰새 가 없는 려단에서 수리동력기지 를 자체로 꾸린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필요한 설비들을 해결한다는것 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 고있을 때 려단장 김준천동무가 불같은 어조로 말하였다.

《발전소물동수송은 다른 누 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 맡 았습니다. 맥을 놓고 우만 쳐 다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당에 서 중시하는 발전소건설의 주 인들이라고 말할수 있겠습 니까.》

려단장의 피끓는 호소는 지휘 관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결사 관철의 자각과 투지를 불러일으 켰다. 모두가 수리동력기지를 꾸리는데 한사람같이 펼쳐나섰 다. 이제는 없는 설비, 모자라는 부속품들이 결코 애로와 난판으 로 될수 없었다.

며칠간이나 로상에서 묵으며 설비,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 려단장 김준 천동무, 새로 들여온 설비의 조 립과 조작을 할수 있는 기능공 을 찾아 백수십리길을 걸은 려 단의 일군들…

그 나날에 있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는 없다. 하지만 한 시도 중단없이 울려가는 이곳 려단 자동차들의 증송의 경적 소리가 그 모든 사연을 백두 청춘들에게 이야기해주는것 아닌가.

단 20일만에 수리동력기지 를 훌륭히 꾸린 려단의 일군들 과 돌격대원들은 신심과 용기를 백배하며 수송전투에서 련일 혁 신을 창조하였다.

당이 맡겨준 과업을 어떤 일 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수행하는가 못하 는가는 다름아닌 우리들에게 달 려있다.

려단의 일군들은 언제나 운전 사들과 함께 수송길을 달리며 화선식정치사업의 불바람을 일 으켰다.

돌격대원들은 하루에 수백리 의 먼길을 오가면서도 항상 높 아가는 언제를 그려보았다.

자동차의 보수정비를 책임적 으로 진행하여 순간도 멈춤이 없이 운행길을 달리고있는 김천 일, 서영민동무들, 낮과 밤이 따 로 없이 전투를 벌려 언제나 앞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한형민, 김성광, 유명호, 김대정동무들, 건설장의 골재는 모두 자기 손 을 거쳐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 심을 안고 착공의 첫 시기부터 유압식굴착기를 운전해온 정준 식동무…

생일날에조차 운전대를 억세 게 틀어잡은 신은걸아바이의 모 습은 돌격대원들에게 한차례한 차례의 수송길을 어떤 자각과 마음을 안고 달려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어찌 이들뿐이라. 려단의 일 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발휘한 가 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모두 합친 다면 그들이 실어나른 산더미같 은 골재를 다 합친것보다 더 많 을것이다.

언제건설의 주인은 바로 우리 들이다! 이런 애국의 자각, 충 정의 자각을 지닌 그들이기에 별들도 조으는 깊은 밤에조차 높은 산, 험한 령을 웃으며 넘나

든것 아닌가. 지금 운수기동려단 수송전사 들의 불굴의 투쟁은 온 건설장

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있으 며 발전소언제를 하루가 다르게 변모시키고있다. 은 눈동자에 자기들의 량심을

온 나라의 관심과 기대가 집 경쟁의 불바람속에 창조되는 우리도 백두청춘들의 투쟁기풍으로 중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장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을

각 도별자동차수송경쟁에 참가한 수송전사들

건설장에서 수송전투의 불바람 이 세차게 일고있는 가운데 각 도별자동차수송경쟁에 참가한 단위들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그들은 5월과 6월 두달동 안에만도 6만 3천여㎡의 골 재와 4 천여t의 세멘트를 수송 함으로써 청년돌격대원들이 언 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 조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기여 를 하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쟁을 잘 조직하 고 힘있게 벌려 건설투쟁에서 집단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가 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시작된 각 도별자동차수송경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전소건설 장에 대한 현지지도이후 더욱더 고조를 이루며 치렬하게 벌어지 고있다.

수송경쟁참가자들은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가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가슴에 새겨안고 수송전투의 날과 달을 이어가

> 모든 운전사들이 발전소건설 의 전초선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맡은 수송과제를 책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특히 평안북도의 수송경쟁참 가자들은 발전소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도청 년동맹위원회 일군인 문정철동 무는 운전사들이 오늘의 이 수 송길이 곧 완공의 날과 잇닿아 있다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수송 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화 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속품보장과 후 방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운전 사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수송 경쟁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리 도록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고있다.

운전사들인 백학성, 렴철순동 무들은 자기 도의 명예는 자기 들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5월과 6월에 1만 1 천여m³의 골재와 1 천여t의 세멘트를 수송하는 위훈을 창조

평안남도, 평양시의 수송경쟁 참가자들도 발전소건설을 중시 하는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 고 불비한 도로조건과 제기되는 여러가지 난관을 이겨내며 수송 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각 도별자동차수송경쟁에 대 한 해당 단위들의 지원사업도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수송 경쟁에 참가한 자기 단위를 돕 기 위하여 지난 6월 상순에 2 0대의 화물자동차들을 물동 수송에 동원시킴으로써 평양시 가 높은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 였다.

지금 각 도별자동차수송경쟁 에 참가한 모든 수송전사들은 당에서 정해준 날자까지 무조건 발전소를 완공하기 위하여 불꽃 튀는 전투의 분과 초를 이어가 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건설장의 골재산은 나날이 높아

위해 밑거름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내 각집중수송대의 일군들과 운전 사들이다. 그들은 친자식, 친동 생과도 같은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해 자기들이 있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수송전 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근 1 0 O O m³의 골재를 운반하는 자랑

찬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 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 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립도 없 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물동수 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직된 내각집중수송대는 처음 부터 여러가지 애로와 난판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급히 조 직된것으로 하여 정연한 체계가 서있지 않았고 후방토대와 보장 성원들도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대중의 정신력 을 불러일으키는것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 당일군인 김호 다는 불타는 열의밑에 수송전투

각 집 중 수 송

철동무는 운전사들과 마주앉아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정은 보다싶이 어렵다. 하지 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워 주신 백두청춘들의 투쟁기풍으 로 달린다면 얼마든지 우리 몫 을 할수 있다. 당에서 청년들을 도우라고 우릴 보냈는데 절대로 그들의 짐이 되여서는 안된다. 우리도 청춘시절의 그 열정을 되

찾아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자. 소나기가 내리는 작업장에서 백두청춘들의 결사적인 투쟁모 습을 목격하고 눈물이 글썽해서 온밤 잠들지 못했던 운전사들은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섰다.

높아진 운전사들의 열의에 맞 게 대장 백문호동무는 사업조직 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자동차별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그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내각집중수송대는 이렇게 대 오를 정비하고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에 의거하여 점차 수송실

적을 높여나갔다. 수송대의 운전사들은 백두청 춘들과 함께 만년언제를 쌓아간

CH 에서 자랑스러운 위훈을 창조해

가고있다. 석탄공업성 운전사 고명찬, 김광명동무들은 골재수송량이 자 언제의 높이라는 자각을 안 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려 현재 제일 높은 실적을 기 록하고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 운전사 김

태문, 우성철, 무역은행 운전사 류창현동무들도 실적은 곧 우리 의 량심이라고 하면서 맡은 계 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운전대를

놓지 않고있다. 위수술을 받고도 다시 수송길 에 오른 수도건설위원회 운전사 서운철동무를 비롯하여 운전사 들모두가 청년돌격대원들의 맑

비쳐보면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 게 지펴나가고있다. 나날이 정규화되여가는 대오

와 련일 오르고있는 수송실적을 보며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 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 내각집중수송대의 일군 들과 운전사들은 청년강국의 주 인공들이 달리는 그길에 포석이 되고 연석이 될 한마음을 안고 수송전투의 순간순간을 깨끗한

량심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언제공사에 필요한 골재보장을 잘하고있다.

-대 암골재 장에서 -

원 행 르 과 찾 수

가고있다.

온 나라 강산에 어버이수령님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절 한 그리움의 정이 한껏 차넘치 고있는 7월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온천과수농장으로 취재길을 이 어가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 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온천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 과며 복숭아, 배가 주렁진 과수 원들이 차창에 련이어 비껴들 었다.

농장에 도착한 우리는 지배인 임준혁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전 망대로 향하였다. 전망대에 올 라서니 과수농장의 전경은 볼수 록 장관이였다. 저 멀리 푸른 바 다기슭의 바둑판같은 소금밭이 해빛에 번쩍이고 울긋불긋 온갖 파일이 주렁진 가없는 포전은 말그대로 과수의 바다였다.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 드넓은 과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해하는

우리에게 임준혁동무는 젖은 목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이처 럼 훌륭한 청춘과원을 마련해주 시였습니다.온갖 열매 주렁진 오늘의 이 청춘과원을 바라볼 때마다 과수원건설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겁게 되새겨

집니다.》 이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5 작업반포전으로 걸 음을 옮기였다. 제5작업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에 대한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신

뜻깊은 곳이다. 우리와 만난 당시 작업반장 이였던 85살 난 김영진로인 《그날은 대한을 앞둔 때 라 얼마나 날씨가 춥고 맵짜 던지…》라고 하면서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포전길에서 만 나뵙던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 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농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로를 세 멘트로 포장하여 과일나무들이 -랭습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살림집들을 산기슭 에 옮겨짓고 과일나무비배관리 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

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

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오랜 시간 찬바람이 불어치는 포전머리에서 평범한 제대군인 작업반장의 소박한 말도 들어주 시고 눈덮인 수로뚝을 따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 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때로 부터 8차례나 이곳 농장을 찾 고 또 찾으시여 남포시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시기 위

해 마음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5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농장이 과일농 흐를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농장 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게 휘 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온천과 수농장은 해마다 온갖 열매 주렁 지는 청춘과원으로 변모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앞 장에서 헤쳐가신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있어 오늘과 같은 과수 의 바다가 펼쳐진것이다.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우

리는 복숭아따기가 한창인 포전 을 찾았다. 시의 애육원, 육아원 원아들에게 보내줄 첫물복숭아 인데 충실한것으로 골라 잘 포장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지배 인의 목소리에도, 한알한알 정성 껏 복숭아를 따는 농업근로자들 의 얼굴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을 인민들에게 전해가려 는 충정의 일념이 어려있었다. 행복의 열매 무르익은 드넓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 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는 세월이 흐르 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을 떠났다.

과수의 바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원히 저의 집에는 두상의 뜻깊은 기념사진이 가보로 정중히 모셔

져있다. 한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펼 치고 눌러주신 수첩에 제가 만

년필을 꼭 쥐고 글을 쓰고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 또 한상 은 수령님의 무릎에 앉아 행복 에 겨워 웃고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그 영광의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추억은 잊 지 못할 50여년전 그날에로 끝없이 물결쳐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고 거듭 칭찬해주시였다.

인간이시였다.》 주체 4 7 (1 9 5 8)년 5월 10일 당시 인민학교학생이였 던 저는 혜산시에서 열린 군중대 회에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

지니게 되였다. 그날 저는 분에 넘치게도 군 중대회에서 연설을 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가까이에 서게 되 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을 하시다가도 때때로 저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기

꽃다발을 드리는 한없는 영광을

못 할 도 하시였고 비가 내리자 비방 울이라도 맞을세라 품속에 꼭 안아주시는것이였다.

군중대회가 끝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승용 차에 태우시고 역구내에 서있는 렬차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여 춥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어주시 고 손수 수첩과 만년필을 내놓 으시면서 저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행복에 겨워 당실당실 춤을 추 는 저에게 제일먼저 박수도 보내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를 다시금 품에 꼭 안으시고 잘 익 은 과일도 쥐여주시며 수고했다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 아안은 그날로부터 한달 남짓이 지난 어느날 두상의 뜻깊은 기념사진이 저의 이름으로 학교 에 도착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받아안았을 때 저는 이 세상의 행복을 혼자 다 차지한듯싶었다.

후에야 저는 두상의 사진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였다.

어느날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의 이름 을 부르시며 기억나는가고 물으 시였다고 한다. 그이께서 지난달 에 혜산에서 만난 아이가 있지 않는가고 튕겨주시여서야 일군

은 생각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보관하시였던 두장의 사진을 내놓으시며 래일이 그 애 의 생일이라고, 그 애가 이 사진 을 생일날에 받아보도록 보내주자 고 환히 웃으시며 교시하시였다.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듣는 순간 저는 솟구치는 격정으로 마음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우리 나라에 저와 같은 소녀 들이 한둘도 아닌데 나라일로 그

처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떻게 량강땅에서 잠간 만나신 이름없는 소녀를 잊지 않으시고 기념사진을 보내주셨을가 하고 몇번이고 생각해보았지만 그때 너무도 어린 저로서는 수령님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5년후인 주체 52(1963)년 8월 12 일 량강땅을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도안의 로

친 어 버 이 사 동자, 학생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아주시면서 그 많은 출연자들 속에서 구연을 하는 저를 알아보 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렁님께서 는 벌써 이렇게 커서 소년단원 이 되였다고, 앞으로 소년단생 활도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여 로동당의 참된 딸, 조선의 훌륭 한 녀성혁명가가 되라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 현지지도의 길에서 품에 안아 주시였던 한 평범한 소녀에게 기념사진을 보내주시고 그때로 부터 다섯해가 지났어도 잊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 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이 나 라 천만자식모두를 사랑의 한품 에 안아 키워주신 한없이 인자 하고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스스 럼없이 안기며 따르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 저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 그 사랑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 하는 길에 있는 힘과 지혜와 열 정을 다 바치겠다.

혜산의학대학 교원 박 순 의

대양으로 영생하신다 인류의 마음속에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나 라 에 서 여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영국, 스 웨리예, 스위스에서 2일과 4일 에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 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인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을 가장 경건한 마음

으로 회고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였 으며 가장 우월한 조선식사회주 의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께서 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바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오래전에 세금제도가 철페되였 으며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생활향상 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였다.

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 의 자애로운 영상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며 그이의 업적은 불멸할것이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 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다음

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 에 계시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모 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 에 조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기

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 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조선인 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에게 있 어서 가장 큰 손실이다.

주석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다.

김 일 성 주 석 의 위 업 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김정은각하에 의 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프랑스, 인도네시 아, 에티오피아에서 6월 29일 과 7월 1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 였다.

프랑스좌익급진당 국제비서 베누아 께네데이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걸출한 령도자,세계정치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긴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아시아와 조선반 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 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통일방안들은 세계 진 보적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 야 한다.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쁘레스회사 사장 한뚱 위리

안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장구한 기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주석께서는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국제 질서수립과 반제자주위업실현 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심 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하기에 오늘 김일성주석께서 는 전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정치원로, 혁명의 대성인, 만민의 태양으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 계신다.

출 판 보 도 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들이 그이의 태양상과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쁘라우다 쁘리모리야》 6월

24일-30일부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 상, 선군사상이 있어 조선혁명 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하 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었으 며 세계 진보적인류는 민족해방 과 반제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 적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령도의 거장이시다. 그이의 한평생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 들을 불러일으켜 온갖 시련과 난판을 이겨내고 미증유의 기적 을 창조하여오신 나날이였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인간사랑의 화신이 시다. 그이께서 인민들로부터 공식직함보다 《어버이수령님》 으로 불리우시였고 서거후에도 《영원한 주석》으로 칭송받고 계시는것은 우연치 않다.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자주위업발전과 더불어 길이 칭송될것이며 그이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태양의 영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 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아디스 케테 마지부소조 책임자 다웨드 아 헤메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을 단호히 제압하면서 조선 에서의 사회주의위업과 조선 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 보하는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주체 적혁명무력건설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들 특 집

력사에는 김일성동지처럼 한평생 인민들에게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을 안겨주신 령도자 는 없었다.

《브이보르》 6월 26일부는 옹근 한면에 게재한 글 《국제주의자의 귀감》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무장으 로 옷호하시였으며 중국혁명을 적극 지원하신데 대하여, 전후 미제와의 끊임없는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나날에도 반제자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 심량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6월 25일부는 세계자주화위업 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을 칭송하는 글을 주체 사상탑사진과 함께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 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사실자료 들을 렬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온 세계의 자 주화를 위하여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 발전시키신것이라고 하면서 신 문은 그에 대해 전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 에도 깊은 판심을 돌리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쌓으신 그이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그이의 태양상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특집 하였다.

벌가리아신문 《이스크라》 7월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이라는 제목의 글에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고귀한 한생을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 1994년 7월 8일 너무도 애석 하게 서거하시였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 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 건하시였으며 간고한 항일무장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나라 를 해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조선로동당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 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정 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 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 와 인민은 3년간의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 추 종세력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 리를 이룩하였다. 또한 조국땅 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 의강국을 일떠세웠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 업 으 로 내 세 우 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1일부 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 하였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 이시다.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 으나 그이의 사상과 위업은 끝 없이 이어지고있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 상, 선군사상은 조선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으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 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는것은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 2일부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 고 정력적인 령도로 인류자주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기관과 나이제리아단체가 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로씨야 이르꾸쯔크주 동부씨

비리출판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일성주석의 서거 21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7월 8일에 즈음하여 조선인 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생애를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

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 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 하시여 인류공동의 고귀한 사상 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장구한 항일무 장투쟁으로 조국해방을 이룩 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 선민주주의인민굥화국을 창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와 그 추좃세 력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 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 며 전후복구건설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 여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 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또한 조선통일위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도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최고화신이시다. 주석을 만나뵈온 사람들은 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뷸레찐은 《김일성주석 서거 21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께서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

하고있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밑 에 신음하던 시기 탄생하시여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주체사 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 게 구현하시여 그 진리성과 생

구나 그이께 매혹되였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 시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생전의 모습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해마다 세계적판도에서 김일성주석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일성 희세의 전략가》라는 제 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글은 천재적인 군사적예지 와 독창적인 전략전술, 탁월한 전법으로 세계《최강》을 자랑 하던 미제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하였다.

뷸 레 찐 특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주체사 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에서 6월 30일 뷸레찐특간호를 발행 하였다.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 7월 8일은 조선민주주 의 이 민 공 화 국 의 영 원 한 서거하신 때로부터 21돐이

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 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와 인류앞 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을 감회깊이 회고

활력을 만방에 과시하시였다.

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를 일떠세우시였다. 또한 조선 통일위업에도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 주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공명 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 을 제시하시고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이끄시였다.

주석께서는 많은 나라와 민족 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지성 원하시였으며 쁠럭불가담운동 의 강화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주석을 만나뵈온 사람들은 누 구나 다 그이께 매혹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 하시였으나 그이의 사상과 위업

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뷸레찐은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자주의 새시대 를 개척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세계정치원로 로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열어나가자 들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부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3돐에 즈음하여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 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성명은 7. 4공동성명의 발표 로 자리잡게 되였다고 언급하 는 조국통일운동의 옳바른 리 념과 원칙을 밝혀준 민족사적

사변이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의 발표로 분렬의 력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였다고 주

장하였다. 7. 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념원하는 남과 북,해외 온 민족의 가슴속에 나라의 통일 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원칙으

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력사적 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 불변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 단합,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여는 족광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강 조하였다.

성명은 자주의 원칙을 지키 지 못하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 을 외세에게 롱락당하고 나라 의 평화와 통일도 기대할수 없 다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이 남 긴 력사적교훈이라고 지적하 였다.

반미자주를 통일문제해결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민족끼 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 의 운명과 진로를 개척해나가야

현 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면서 동족을 멸살시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분렬의 70년력사는 체 제대결이 아닌 런방제방식에 기초한 평화적방법만이 통일의 유일한 방도라는것을 보여준다

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 평화와 통일이 있다고 하 면서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남 쳐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호소 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 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전

쟁을 불러오는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성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을 가로막고 분렬을 조장하는 《보안법》과 《5.24조치》를 철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 게 벌려 조국해방 70돐을 맞 는 올해에 8.15민족공동행 사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하였다.

탄저균사래의 장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

남조선의 탄저균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탄저 균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

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탄 저균실험을 감행한 곳으로 알려 진 룡산미군기지안의 병원과 담 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지

구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룡산주민들은 어떤 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있 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 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중을 위 한다는 《정부》의 모든 일에 대 해 더 의심하게 되였다고 하면 서 탄저균사태에 아무런 대응도 만 있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탄저균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 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 기 위해 미군기지앞에서의 초불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그들은 선

주석께서는 걸출한 령도로 조

【조선중앙통신】 하지 않는 당국을 더이상 보고

언하였다. 이어 단체는 지난 9일

부터 시작하여 총 8 700여명 의 시민들이 서명한 고발장을 검찰에 들이댔다. 고발장을 통 해 단체는 탄저균을 불법적으로 반입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판 등을 고발하면서 주민들 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 에 빠뜨린 이번 행위에 대해 철 저히 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저균 밀반입 규탄 | 진상규명 | SOFA 개정 | 오바마 대통령사과

面間里製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대학생 기자회견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반입사건을 규탄하는 남조선대학생들

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진리성이 남김없이 과시된 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일본지식인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해 결을 위해 노력할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일 본집권자에게 보냈다. 그들은 요청서에서 일본 군성노예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제적녀성인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진실을 인정하고 솔직한

사죄와 명예회복조치 등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보다 앞서 16개 단체의 6 900여명의 학자들도 정부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

할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녀성 들이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말로 표 현할수 없는 성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정객들과 언론들이 력사외곡행위를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백번 옳은 주장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력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십년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륙하고 재부들을 략탈하였으며 가혹 한 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2 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

치, 유괴하여 성노예로 만든것은 짐승도 낯을 붉 힐 특대형반인륜죄악이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다면 그에 대해 솔직히 인정 하고 피해국들에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 을것이다. 하지만 패망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과거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미화분식하면서 그 책

임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은 《과거지사에 대해 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오며 외곡해온 범죄사실을 이제 와서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행동으로 된다. 》는 후 안무치한 강변들을 쏟아내고있다.

력사부정 및 외곡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 편 사회의 우경화,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다

그치고있다.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합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관련법개

정을 서두르는 등 재침의 발판을 다지고있다. 세계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했다고 평하 고있는것은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은 패망 70년을 계기로 발표하게 될 담화와 관련하여 본색을 더욱 드러 내고있다.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던 이 전 수상, 내각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한쪽으로 는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 으로는 《력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이상 또 다시 쓸 필요는 없다. 》,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 면 담화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새 담화에서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빼놓으려

하고있다.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패망 70년을 계기로 겉치레식의 담화를 발표 하여 과거범죄와 관련한 사죄와 반성을 할만큼 했으며 과거사문제는 마무리되였다고 밀어붙이

려는것이다. 력사를 부정하는것은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그런 식으로 력사의 진실을 어물쩍해

넘길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다. 현시점에서 일본이 늦게나마 과거범죄를 대담 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올해가 일본이 침략과 식 민지지배의 력사와 깨끗이 결별하는것과 함께 과 거범죄를 부정해온 비뚤어진 70년력사도 바로 잡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의 수많은 지식인들 속에서도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관한 문 제를 바로 대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침 략과 사죄를 명백히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그 래야 일본이 력사문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라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오

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지금 정상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국 제사회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계속 군국화, 우 경화를 다그쳐 자멸을 촉진하느냐 하는 갈림 길에 서있다.

세계는 일제패망 70년을 맞으며 과거를 대하 는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

철 혁

젘 Oi

미국에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목 표로 내걸고 출현한 오바마정권의 임기 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껏해야 1년반정 도이다. 이제는 막판이라고 생각해서인 지 오바마정권의 고위인물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목표가 위선과 허위로 세 계를 기만하기 위한것이였다는것을 뻐젓

이 드러내놓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부장관이 미국회 하 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가하여 《미국 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하지만 북조 선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처하여 강력 한 핵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떠벌 였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억제력은 장래 에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 필수적인 수 단으로서 유지되여야 할것이라고 횡설수 설하였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

의 날강도적인 망발이다. 드넓은 우주공간에서 생명을 담보해주 는 유일한 행성인 이 아름답고 푸르른 지구를 열백번도 더 파괴할수 있는 끔찍 할 정도의 핵무기들을 세계곳곳에 배비 해놓고 더욱 현대화하고있는것이 다름아 닌 미국이다. 그런 핵범죄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는것은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하늘에 대고 폭소를 터 뜨릴 해괴한 일이다.

가관은 우리의 《지속적인 핵개발》때문 에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 되지 못하고있는것처럼 구차한 궤변을 늘 어놓고있는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마실 내가의 맑은 물을 양이 흐려놓기때 문에 가만둘수 없다는 우화속의 승냥이가 놀아대는 추태와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 승냥이가 양가죽을 뒤집어쓰는것은 자 기를 위장하여 손쉽게 양을 잡아먹기 위 해서이지 진실로 양이 되고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승냥이는 절대로 양이 될 수 없다.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고싶어하는것 은 지구상에 첫 핵무기가 나온 그때부터 인류가 실현하려고 한 공통된 념원이였

고 지금도 품고있는 강렬한 지향이다. 인류의 이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악용한 덕에 교활한 오바마정권이 《평화지향적 인 정권》으로,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지 고 핵위협공갈을 유희오락처럼 일삼는 흉악한 미국이 《평화국가》로 둔갑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신기루 에 불과한것이였다. 허상이 인차 사라지 고 실지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것은 자연 계에서뿐아니라 국제생활에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법칙적인 현상이다.

바마정권도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만능론에 환장한 정권, 미국은 핵 전쟁도발에 이골이 난 핵미치광이라는것 을 톡톡히 드러내놓았다. 우리의 핵개발때문에 《핵무기없는 세 계》가 건설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번에 미국무성 부장관은 《강력한 핵

억제력유지》에 대하여 떠벌임으로써 오

하여 무작정 옳다고 하는 하수인들에게 나 불어대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의 핵보유는 핵전쟁을 막고 핵무 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필요하고 유

나발은 상전의 말이라면 귀가 항아리만

익한 정의의 선택이다. 만일 제 2차 세계대전말기부터 미국의 핵독점이 계속 유지되여왔다면 히로시마 와 나가사끼의 참상이 우리 나라는 물론 로씨야와 중국 등 곳곳에서 계속 되풀이 되였을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극 동군사령판 맥아더가 우리 나라 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방사능복 도지대를 형성하려고 계획한 사실, 19 4 5년 1 1월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이 전 쏘련의 20개 도시를 원자폭탄투하 에 적합한 목표로 선정한 보고가 미합동 참모본부의 심의에 제기된것 등은 미국 이 여러 나라들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시도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비핵국가로 있을 때부터 조선 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성의있는 이본성은 죽어서도 고칠수 없는것이다.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있는 힘껏 노력하 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호 소에 언제나 귀머거리처럼 행세하였으며 오히려 남조선에 1 000개가 넘는 핵 무기를 배비하고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 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랭전종식후 우 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은 극 도에 이르렀다.

감한것은 비핵국가로 남아있는 한 미국 의 핵위협공갈을 절대로 끝장낼수 없으 며 비핵화도 실현불가능한 환상으로 남 아있게 되리라는것이였다. 우리 나라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됨으로

수십년간의 조미대결과정에 우리가 절

써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독점정책, 핵위협공갈정책은 파산되게 되였다. 력사는 미국이 세계적범위에서 유지하 려던 무분별한 핵독점정책, 핵위협공갈 정책이 파산될 때마다 핵전쟁을 막기 위

해 무엇인가 하려는듯 한 흉내를 내였다

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전 쏘련을 비롯한 렬강들이 핵보유 국으로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핵무기전 파방지조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탁에 나앉을념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을것이 다. 그리고 핵탄두를 축감하기 위한 새로 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로씨야와 체 결하지도 않았을것이다. 1990년대 전 반기에 클린톤정권이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한것도 우리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 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에 호된 타격을 가하였기때문이 다. 오바마정권이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기만적인 구상을 들고나오지 않으면 안 된것도 21세기에 미국의 핵위협공갈정

책이 파산에 직면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막뒤에서 어떻게 해 서나 핵우세와 핵위협공갈정책을 부지해 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해오고있다. 남을 침략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승냥

오바마정권시기에 들어와 미국은 핵무 기고현대화에 더욱 발광하고있다. 림계전 핵시험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지하핵 시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보수 세력들속에서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의 책동때문에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핵군비경쟁의 주범인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우리의 《핵문제》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와 핵 무기를 전진배치하여 지역대국들을 군사 적으로 제압하자는데 있다. 이번에 미국무성 부장관은 《북조선의 지속적인 핵개발》뿐아니라 로씨야와 중국 의 핵무기현대화에 대해서도 걸고들었다. 미합동참모본부 부의장도 우리 나라와 로 씨야 등의 대미핵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아 시아태평양지역에도 유럽과 같이 3대전 략핵무력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지역대국들에 비한 핵우세, 군사기 술적우세를 차지해야 한다는것이다. 미지배층과 독점재벌들은 아시아태평 양지역에 대한 지배권, 패권적지위를 유 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21세기 미 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있다. 그로 부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내 놓고 지역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억누르는 한편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포위환 을 형성하려고 무력증강에 날뛰고있다.

공갈하고 죽일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오 늘의 세계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그러한 낡은 사고방식에 매달 리는것은 자기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오늘 지역대국들과 미국과의 긴 장상태가 격화되고있는것은 오바마정권의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을 위협

구시대적사고방식이 몰아온 귀결이다. 핵군비경쟁을 조장시키는 미국은 히로 시마나 나가사끼의 참상이 자기 본토에 서도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리 경 수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 7 3 - 2 3 1 2, 편집국 3 7 3 - 1 3 2 8, 론설원실 3 7 3 - 5 4 2 8, 당력사교양부 3 7 3 - 5 5 2 8, 당생활부 3 7 0 - 4 5 2 8,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3 5 2 8, 제 1 3 0 0 3 호) (취급승인 제 3 호) 공업부 3 7 3 - 0 2 6 3, 농업부 3 7 3 - 5 6 2 8, 파학문화부 3 7 2 - 4 6 2 8, 조국통일부 3 7 2 - 4 8 8 2, 국제부 3 7 3 - 4 7 2 8, 사진보도부 3 7 3 - 0 7 1 2, 특파기자부 3 7 2 - 4 3 2 8. 7-511061 편 집 위 원 회